

결혼과 여성의 지위 - 여자의 보석 ①

다이아몬드로 빛나는 여자의 자존심

다이아몬드를 여자의 품격에 비유한 광고문안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다. 여자 인격의 값어치가 물질적인 보석으로 상품화시킬 수 있을 만큼 보잘 것 없는 것이냐?는 반론이 함께 따라 붙었다. 여자로서의 성공을 다이아몬드에 비유하는 것이 '반여성적' 발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뭐라 해도 아이아몬드는 가장 욕심나는 물건으로 남아 있다.

<약녀에 대해서(여성신문사 간)>라는 소설 속의 주인공 약녀는 여자들이 마음 속으로 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한 인물인데 그중 그녀의 보석에 관한 묘사는 압권을 이룬다. 가난한 채소집 딸로 태어나 고생 끝에 돈을 벌게 된 주인공은 엄청난 보석을 소유하고 있다. 보석세트는 물론이고 38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등장한다. 어쩌나 보석이 많은 지 강아지 귀에도 다이아몬드장식이 박힌 편을 꽂아 주었다는 대목은 참으로 기발한 발상이기도 하다. 현실로 불가능한 여자들의 보석 소유욕을 너그러워 채워주면서 주인공의 '약녀적 요소'를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다.

스트레스 해소용 보석, 초라한 자신 위안해주는 가치

압구정동에서 만난 한 부인에게 보석에 관해 물었다.
-보석을 좋아하십니까?
"가끔씩 삽니다."
-어떨 때 사십니까?
"스트레스 쌓일 때 삽니다."



-어떤 걸 사십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큰 걸 사고 적으면 적은 걸 사죠.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크기도 달라집니다."
-이미테이션은 안 사십니까?
"어머니 때부터 가짜는 안 삽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아무도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때, 초라해지는 걸 느끼는 때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큰 걸 산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하는 겁니까?
"억이 넘지요."
-다른 걸 살 수도 있을 텐데 보석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석은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 일 거예요. 보석은 남편도 아이

들조차도 빼앗지 못하는 나만의 것이죠."
-보석이 나중에 다시 팔 수 있기 때문에 삽니까?
보석 사는 건 예술작품 사는 것과 같은 일
"그런 생각은 거의 안합니다. 되팔아본 적도 없습니다. 세팅을 다시 하기 위해서 팔기는 경우는 있어도."
블루 사파이어를 가장 좋아한다는 50대의 이 부인에게 있어서 보석 약세사리를 사는 것은 격조 높은 예술 작품을 사는 것과 같은 차원의 일이다. 이 부인은 값나가는 보석을 사서 은행금고에 보관해 놓는다고 전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고 잘 '모셔두었다가' 가끔씩 자기가 초라해진다고 느껴질 때 꺼내서 바라보기도 하고 걸고 있어 보기도 하고 몸에

번번쩍한 보석을 달고 있노라면 자신이 그래도 그렇게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는 치료적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보석 약세사리는 여성들에게 심리치료제 역할을 하게 된다. 남자들이 같으면 인생에서 최고의 직위에 오르게 되는 40대 후반부터 50대에 이르는 시기에 여성들은 '빈 동지의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 상실감을 메꿀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된다. 이때 보석은 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물건이다.
'여자의 보석'에는 남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상징이 들어 있다. 우선 보석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가질 수 없는 희귀재일 뿐 아니라 경제적인 편차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물건이다. '빈동지'에 혼자 남은 여성들에게 경제적인 여유만이 남아 있을 때 '많이 가졌

남자들 같으면 인생에서 최고의 직위에 오르게 되는 40대 후반부터 50대에 이르는 시기에 여성들은 '빈 동지의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 상실감을 메꿀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된다. 이때 보석은 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물건이다.

다'는 유일한 능력을 유감없이 과시해 볼 수 있는 것이 값나가는 보석들이다. 누가 보석을 쉽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극소수에게만 가능한 물건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건 انسان으로 살아온 여자에게 '성공'의 의미를 전한다.

점점 크게, 점점 비싼 쪽으로

보석상들은 보석이 여성을 아름답게 해줄 뿐 아니라 재산 증식의 가치가 있다고 소비자들의 구매를 부추키지만 정작 여성들에게 보석은 재산의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값비싼 보석일수록 세팅비가 상당한데 되파는 경우 세팅비는 전혀 계산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 보석에도 유행이 있다. 10년간 보석을 취급했다는 압구정동의 한 보석상은 10년

전에 비해 크기와 질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한다. 다이아몬드의 경우 10년전만 해도 H 칼라 정도도 많았는데 지금은 G 칼라, D 칼라까지도 나오고 있다. 또 결혼 예물로 보통 3부, 크면 5부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1캐럿 정도도 종종 찾는다. 예전에는 '눈물'을 뜻한다 하여 결혼 예물에서 제외됐던 진주도 지금은 '순결'로 그 의미가 바뀌어 예물세트의 기본 품목으로 포함된 것도 보석 소비의 상향이동을 말해준다. 점점 크게, 따라서 점점 비싼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유행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석을 자꾸자꾸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작은 보석을 큰 보석이 박힌 것으로 또 세팅의 유행에 따라서 고친다.

유행 따라 세팅 바뀌

압구정동 보석상의 경우에도 팔려고 가져오는 손님 거의 없고 세팅과 보석을 좀더 크고 멋지게 바꾸려는 손님들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보석의 재산 가치란 보석상들이 보석소비를 부추기기 위한 보석상들의 농간에 불과하다. 보석을 되파는 경우란 가정 경제가 극심하게 나빠진 때가 아니면 여간해서 생기지 않는다. 남편의 사업이 망했을 때 빚잔치를 하기 위해서나 남편의 사업자금에 긴급히 필요할 때 할값에 되팔게 되는 여자들의 보석을 두고 재산가치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김효선 기자)